

서 평

젠더·어펙트·연결성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하다

권명아, 『여자때 공포, 젠더 어펙트』 (갈무리, 2019)
젠더·어펙트연구소, 『약속과 예측』 (산지니, 2020)

이현재*

1. ‘젠더’를 융복합 연구의 아젠다로

대학의 비판의식과 인문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탄식이 들려온 지 꽤 오래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의 위기’ 담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BK사업이나 HK사업을 통해 아젠다 중심의 연구소를 육성하는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성과가 쏟아져 나왔다. 새로운 시대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융복합 아젠다가 학계의 화두로 등장했고 그와 관련된 각종 학술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많은 논문과 저서들이 출판되었다.

*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feminphilo@hanmail.net)

© 202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가장 큰 변화는 우리사회가 분과 학문시대에서 융복합 학문의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젠다 중심의 연구소 사업을 통해 연구자들은 인문학이나 사회학 등 분과학문의 태도에서 벗어나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세계에 대해 공동의 질문을 제기하고 또 이에 함께 대답하고자 노력했다. 강의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과 시스템이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분과학문’을 정립했다면 연구소 중심의 융복합 사업은 ‘통섭’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방법론을 체계화하고자 했다.

새로움은 있는 것을 다시 직조하고 소통시키는 것에서 온다. 우리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1900년도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보자. 연구자들은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를 중심으로 인류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철학 등을 통섭하고 융합하는 가운데 시대가 던진 문제를 진단했으며 이에 함께 대답하는 과정에서 비판이론이라는 특성화된 방법론을 집대성해오고 있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의 사업들이 과연 학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대학 당국이나 학과의 이해관계에 치이면서 용두사미가 되었는지의 문제는 차근차근 따져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 흐름 속에서 글로컬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 도시인문학, 포스트휴먼 인문학, 의료 인문학 등 매우 의미 있는 융복합 아젠다가 발굴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래한 시대에 대응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아대학교 젠더·어펙트 연구소의 작업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 어디에도 젠더와 어펙트를 전면화시켜 시대의 화두로 던진 곳은 없었기 때문이다. 젠더와 어펙트를 아젠다의 한 부분이 아니라 시대의 화두로, 시대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 제시한 곳은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젠더와 어펙트는 아젠다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깨는 방법론이자 관점이다.

『여자때 공포, 젠더 어펙트』(2019)와 『약속과 예측』(2020)에서 사회복지학, 역사학, 문화연구, 국문학, 사회학, 예술학, 미디어 연구, 고전 연구를 하는 저자들은 각자의 학문분야를 젠더 및 어펙트의 프리즘을 통해 다시 직조하거나 지리학, 매체학 등의 연구 연구방법론과 연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열어젖히고 있다. 이들은 젠더 및 어펙트의 위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이라는 연결신체에 주목할 뿐 아니라, 지역 대학이라는 물리적 조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탐색하며, 나아가 정상/비정상, 정신/신체의 이분법을 넘어서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한다. 정리하자면 젠더·어펙트 연구소는 “젠더 연구와 어펙트(affect, 情動) 연구의 결합을 통해” “지역 그리고 지방대학이라는 물리적 조건” 위에서 인구 변동과 경제 구조 변동이 가져오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질문”(젠더·어펙트 연구소, 2020: 5)에 대응하고자 한다. 권명이는 「젠더·어펙트 연구에서 연결성의 문제」라는 글을 통해 이 연구가 “젠더, 정동(어펙트), 연결성이라는 세 개념과 관련된 이론적 현실적 쟁점을 다루고 이론이 나아가갈 방향을 탐색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2. 젠더, 어펙트, 연결성

젠더 이론의 결절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 젠더·어펙트 학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은 연구소가 제시하는 세 가지 키워드인 젠더, 어펙트, 연결성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약속과 예측』의 서문에 따르면 젠더·어펙트 연구소는 무엇보다도 젠더 연구의 방법론을 이어받는다. 그러나 여기서 젠더연구의 방법론은 단순히 여성의 몸을 가진 사람들의 경험이나 보편성에 입각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이 책의 저자 중 한 사람인 김보명은 「여성 공간과

페미니즘』이라는 글에서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몸에 천착하는 페미니즘의 관점이 오히려 트랜스의 관점을 배제할 수 있음을 비판한다. 젠더·어펙트 연구 참가자들은 오히려 젠더연구의 방법론을 교차적 관점에서 재구성한다. 샌드라 하딩이 페미니스트 입장론을 발전시키면서 분명히 했듯이 젠더의 입장은 여성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공통의 젠더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신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종, 계급, 장애, 지역 등의 모순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을 견지한다. 나아가 젠더·어펙트 연구소는 젠더의 관점을 통해 여성의 입장이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순과 함께 얽혀있음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아닌 서로 연결된, 취약성을 가진, 서로 돌보는 존재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돌봄과 관계의 관점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런 점에서 『약속과 예측』에서 박언주와 이화진 그리고 소현숙 등은 젠더와 어펙트의 관점에서 각각 치매, 장애, 우생학의 관점을 비판한다.

나아가 젠더·어펙트 연구소는 젠더 이론에 정동적 전회를 시도한다. 같은 책 서문에 따르면 “인문의 방법론으로서의 정동 이론은 신체가 무엇을 하는지, 특히 신체가 언어와 이성이 아닌 힘들에 의해 어떻게 좌우되는지를 묻는다.”(젠더·어펙트 연구소, 2020: 9) 이에 따르면 정동적 전회는 언어와 이성이 아닌 힘들에 주목하게 만든다. 여기서 정동(affect)은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상태(emotion)와 다르다. 정동은 어둡거나 밝은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와도 다르다. 정동적 전회는 오히려 신체에 주목하게 만든다. 정동은 운동성을 수반하는 신체의 변용능력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 3부에서 정동을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관념”(이지영, 2013: 56)이라고 정의한다. 우리의 신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부대끼면서” 변용을 주고받는다. 이런 점에서 정동 연구의 신체는 수동적이기만 한 것도 능동

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물질적인 것이기만 한 것도 정신적인 것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신체를 매개로 하는 정동 연구는 물질/정신의 이원론, 능동/수동의 이원론을 벗어나는 방향을 노정한다. 가령 이화진은 정상/비정상상의 이원적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그러한 구분에 포획되지 않는 ‘보통이 아닌 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젠더 이론의 정동적 전회를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젠더·어펙트 연구는 신체와 정동의 연결성을 강조한다. 연결성은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물들의 힘의 연결에 주목하는 신물질론(new materialism)의 핵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신체를 “연결 신체”라고 부른다. 연결 신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주체가 추후 계약이나 연대를 통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신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주디스 버틀러가 말했듯 타자는 나의 외부에 분리되어 있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연결되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우리는 이 연결을 떠난 나를 상상할 수 없다.

타자와 신체를 통해 연결된다는 것은 말이나 정신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기보다, 해러웨이가 말하듯 서로 신체적으로 접촉하고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박언주는 언어상실과 함께 의사소통에서 제외되는 치매인들조차 신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지속”(젠더·어펙트 연구소, 2020: 42)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연결을 신체적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들만의 사회적 연결을 넘어 신체로서의 인간과 환경의 연결, 지역과 지구의 연결까지도 생각한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젠더와 관련된 신체적 공간에서 어떤 정동들이 교차하는지, 신체적으로 서로 부대끼면서 어떻게 변용되고 변용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신체가 어떤 취약성을 갖는지 등의 물음을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차원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다. 가령 김나영은 고전문학 텍스트와 연구자 그리고 기계가 정동적 관계로 서로를 어떻게 변용시키는지 분석한다. 돌봄을 의존이 아닌 연결성으로 읽어내는 권두현은 시적 정의가 어떻게 법적 정의에 누락된 돌봄 윤리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면서 여기서 돌봄이 주체의 굴복이나 순응이 아니라 저항을 가능하게 하는 정동의 관계일 수 있음을 역설한다.

3. 부대낌을 위한 질문들

아젠다와 키워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서로의 글과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이면서 부대끼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두 권의 저서 안에 모인 글들이 위에서 제시한 방법론과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지, 혹은 그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지 나아가 이 과정에서 서로의 글과 말을 인용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물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연구자들이 함께 부대길 시간과 동기를 갖는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낌을 통해 다음의 주제들을 좀 더 정치하게 논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본다.¹⁾

1) 신체 유물론

이 개념은 권명아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의 신체유물론」, 박언주의

1) 저술의 방대한 양에 비해 지면이 적은 관계로 두 권의 책에 실린 논문 모두를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서평자가 철학자인 만큼 문학적 해석이 담긴 글들을 제대로 평할 수 없었고 부대낌을 위한 질문도 개념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인간 존엄의 조건으로서의 상호의존과 연결성」, 소현숙의 「우생학의 재림과 '정상/비정상'의 폭력」 등과 연관된다. 권명아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정신을 강조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신체에 주목할 것을 요청한다. 박언주는 치매인의 신체에 체화된 비언어적인 역량과 동력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소현숙은 장애인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글들에서 권명아, 박언주 그리고 소현숙이 서로 같은 차원에서 신체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령 박언주에게 치매인의 신체는 이성의 반대가 아닌 비이성과 비언어가 말과 함께 존재하는 곳이지만 소현숙에게 장애인의 신체는 '비정상'으로 치부되는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여전히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 신체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생물학적 몸에 대한 국가의 해석이야말로 신체가 그 자체 생물학적 몸이 아닌 언제나 해석이 따라 붙는 몸-기호임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더더욱 젠더 어펙트의 핵심 개념을 통해 여성, 장애인, 치매인의 '몸'이 한 번 더 설명되는 지점이 있기를 바라게 된다.

또 다른 바라는 이분법 하에서의 육체를 이해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이분법이 해체된 상태에서 육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많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육체 유물론의 논의가 '그것이 아니라'에서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가령 박언주는 치매 환자에게 남아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감정들, “몸에 체화된 잔존기능”(젠더·어펙트 연구소, 2020: 41)에 좀 더 주목하면서 돌봄에 있어 상호연결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체는 이성적이지 않은 어떤 것이 잔존하는 곳인가? 잔존하는 동력을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돌봄의 방향이라면 여기서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금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식인가? 연결이 상호

연결이라면 치매환자의 몸과 접촉하고 있는 돌봄 제공자의 몸은 어떻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2) 연결성과 관계

다음으로는 연결성을 관계성과 연결시키는 논의가 더 많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젠더·어팩트 연구는' 디지털 시대 인문의 미래를 연결성과 관련시키면서 '관계성'을 강조한다.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는 곧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부대끼는 몸들의 ‘생성적 릴레이’”(젠더·어팩트 연구소, 2020:152)를 탐구하는 것이 정동 이론임을 강조하면서 권명아는 연결을 통해 되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동은 수행이기를 넘어 명령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나중의 약속이 현재부터 작동하기에 정동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말도 덧붙인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관계나 연결을 상호인정이 아닌 “상호의존성이자 상호주관적 관계성”으로 풀어내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립된 주체가 서로를 호혜적으로 인정하는 모델이 아닌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다. 서로 연결된 연결-신체들은 독립적 자아와 달리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상호정동성”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는 이해하기 힘들다. 연결-신체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의 위치에서 각기 다르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상호정동성이 가능하게 되는가? 관계란 상호정동성을 의미하는가? 오히려 관계의 패러다임이 집중해야 할 질문은 공통성이 아니라 차이가 아닌가? 다시 말해 어떻게 다른 위치에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관계가 나타나는가가 아닌가? 연대의 기반은 상호정동성이 되어야 하는가, 왜 연대는 관계의 상이성을 고려하는 데서 시작할 수 없는 것인가?

이와 더불어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된 시기에 왜 사람들은 공간의 분리

를 주장하고 나서는 것인가의 문제도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관계와 연결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로 그것이 가져오는 불안이 구분의 페미니즘 공간 정치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보명의 문제의식을 심화시켜, 왜 모든 것의 “되기”와 “트랜스”가 강조되는 시대에, 디지털 매체가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시대에 페미니즘의 한 흐름은 공간 구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다면 그 결과는 제대로 된 연결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일군의 페미니즘은 몸의 뚜렷한 구분을 상상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전’이라는 불가능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연결 속에서 안전을 찾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4. 정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다

무엇보다도 나는 젠더·어펙트 연구소가 제안하고 있는 정동연구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권명아가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에서 논의하듯 정동 연구에서 누가 정동의 개념의 기원자인지를 두고 논의하는 것도 학계의 한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런 문헌학적 연구가 항상 모든 연구의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정동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진보의 관점을 소비자본주의의 총체적 부정과 연결시키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운동은 무엇을 부정하는 것에 있다는 도식은 내부와 외부, 자아와 타자를 구분된 것으로 보는 패러다임에서만 가능한 사고이다. 이분법을 벗어나는 정동의 관점, 연결-신체의 관점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내부와 주변에서의 교란 및 교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도식에도 잡히지 않는 공포스러운 여자떼의 불매 운동을 지배적 헤게모니에 저항하여 “상호 교섭을 시도하려는 정치적 실천” (권명아, 2019: 155)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매우 올림이 있었다. 연장선 상에서 모성을 주체성의 대립이 아니라 협상과 교섭 가능한 정치의 원리로 전유할 필요가 있다는 최이숙의 주장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의존을 주체성의 대립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됨의 조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도 중요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러한 정동 연구의 방향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대끼길 바란다.

참고문헌

- 젠더·어펙트 연구소(2020), 『약속과 예측』, 부산: 산지니.
권명아(2019),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서울: 갈무리.
이지영(2013), “스피노자: 신체와 합리적 정서의 문제”, 『한국철학회』, 제116집, 45-74쪽.